



“살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취해라”

“절대로 화가 나서 동물을 죽이지 말라. 얼마나 많이 죽일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재미로 죽이지도 말라. 살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취해라. 늘 동물에게 존경심을 보이고, 꼭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라.” 인디언들의 사냥 원칙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는 먹고 먹는 방식으로 결속되어 있다. 인간 역시 동물을 통해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생명의 고리에는 ‘살기 위해 필요한 만큼’이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고기를 탐식하고 있다. 인간 스스로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깨버린 것이다.

수 있다.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급성가축전염병이다.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는 널리 퍼졌다 하면 막기가 어렵다. 오염 현장과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 모두를 매뉴얼대로 훈련시키는 것도, 감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평상시의 면역 강화와 질병 예방 말고는 뾰족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동물복지를 축산농가에 적용해 가축이 새끼를 몇 마리 낳고, 몇 마리가 죽었는지, 무슨 약을 썼는지 등 모든 사육관리 기록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상시 방역시스템만이 해답이라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제역은 자연의 심각한 경고다.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와 돼지가 이미 34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초동태우부터 차단방역은 물론 백신예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장식 밀

동물복지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대량 소비에 따른 대량공급은 결국 생태계와 환경의 파괴, 농축산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전환은 분명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는 가축 질병의 감소,



집사육에 있다. 소득이 향상되면서 육류 소비는 급속도로 늘었고, 소비량에 맞추기 위한 가축 공장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가축들은 햇볕도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우리에 갇힌 채 고열량의 사료만 먹고 살만 찌는 방식으로 사육됐다. 애초부터 외부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낼 면역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환경 보호, 그리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상쇄될 수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정부는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과 식품을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늘리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동물복지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세워나간다면 우리가 스스로 깨버린 생태계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동물복지’란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동물복지란 동물을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생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지각력 있는 존재인 만큼 최소한의 움직임과 사회성을 보장해 고통과 스트레스를 막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동물복지란 개념을 받아들여 최소 사육 면적 등을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농가와 계약을 맺은 수의사가 주치의 노릇을 하면서 가축의 질병 관리를 하고 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야 동물들이 건강해지고, 나아가 식품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철학이 사회 전반에 깔린 것이다.

동물복지의 구제역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방송기술저널은 개편을 맞아 문화면을 신설하고, 다양한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신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감상한 책이나 영화, 잊을 수 없는 맛을 지닌 먹거리,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맛있는 여행지 등을 독자 여러분이 직접 소개해주세요. journal@kobeta.com으로 여러분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방송기술저널 지면에 실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눈 세상 홋카이도에서의 스노보딩과 일본대지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기술팀 안대호 차장

스노보딩(Snowboarding) 시즌 생활을 접은 지 4년이 지나고 봄이 오는 즈음에, 아는 형님과 함께 파워더 스노보딩을 하러 일본으로 향한다. 이번 여행으로 스노보딩 원정 7회차(뉴질랜드 3회, 일본 4회)로 접어드는데, 스노보딩 원정여행은 그저 아무 생각없이 보딩하고 식사하고 온전하고 밤에 쉬는 아주 간단한 일정이기에 꼭 쉬고 즐기기에 최고인 여행이다. 또한, 이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스노보딩 스킵을 높이고 투자한 내 자신에 뿌듯하기도 하다.

을 따라가게 된다. 하지만 아깝사! 잘 모르면 루트에서 밸런스를 놓쳐 넘어졌는데 눈높이가 허벅지에 이르렀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눈속에 데크가 쳐박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보더들이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눈높이가 허벅지에 이르러도 산의 경사가 높다면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지만, 이곳은 경사가 약해서 걸어 나갈 수밖에 없어서 더욱 힘들었다. 길을 모르는 스노보더들을 따라간게 화근이었다. 깊게 쌓인 눈더미로부터 안간힘을 써서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 사이 이미 체력은 바닥이 나버렸다. 결국 그날 오후는 스트레칭 분위기의 가벼운 라이딩과 파워더 스노보딩 연습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대로 대재앙 수준의 쓰나미였다.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부랴부랴 카카오톡(스마트폰 SNS 어플) 프로필을 “홋카이도 현재 안전 이상무”로 바꾸어 우선 우리의 신변이 안전함을 알렸다.

다음날 (3월11일) 본격적인 파워더를 즐기 위해 다시 정상으로 오르는데, 나는 그제서야 리프트 앞에 “Expert only, Ungroomed snow(손질하지 않은 눈길이니 전문가만 이용하세요)”라고 적힌 표지판을 봤다. 일행과 난 잠시 망설이며 도전이나 포기냐를 고민하다가 결국 리프트에 올랐고 다시 산정상에 섰다.

나무 한그루 안보이는 하얀 산! 내려갈 루트를 살피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최대한 후경으로 내려가는데 가슴으로 올라오는 전율을 느낀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가르는 보딩, 시원한 시야, 하얀세상 그리고 어제의 좌절을 극복해 낸 것 같은 자신감! 산중턱에 내려오니 여기저기 숲이 보이고, 이제 트리런(tree run) 차례다. 트리런이란 나무 사이로 스노보딩을 하는 것인데 위험하기도 하지만, 재미가 최고다.

오후 다섯시쯤 라이딩을 끝내고 내려와 TV를 틀었는데 모든 채널이 NHK 방송을 방영하고 있었다. 일본 동쪽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일본 전체가 국가비상체제에 돌입해 있었고 방송 또한 재난방송체제로 돌아선 상태였기 때문이다.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니 ‘오후 3시49분 일본동부지역 지진발생’이라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국상황을 체크하고, 일본뉴스에서 쏟아지는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했다. 말 그

마일리지를 이용하려 보니 일정이 나오는 곳이 이곳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결정으로 대재앙 일본대지진을 피할 수 있었기에 천운이 아니었을까? 일본대지진(3월12일)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3월 9일, 홋카이도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외교부에서 “일본 동북지역 쓰나미발생”이라는 문자가 왔다. 하지만 뉴스를 보니 별 피해가 없는 듯 잠잠했고 우리 일행은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우리가 갈 스키장은 니세코 안누푸리산에 위치한 니세코 스키장인데, 홋카이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신치토세 공항에서 두시간반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도착할 수 있었다.



다음날, 베이스에서 리프트를 타고 대략 40분이 걸려서 올라간 마운틴 탑엔 엄청난 바람과 눈보라가 고개를 때려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행과 함께 천천히 시야확보되는 곳까지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니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온세상이 하얗다. 나는 신나게 보딩하기 시작했다. 보통 잘 모르는 스키장에서 다른 스노보더들

원래는 다음 날 일정 역시 스노보딩이었다. 하지만 일본 현지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노보딩을 하는 건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한국에 가는 게 최우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장 현지숙소를 캔슬하고, 공항 근처의 숙소를 예약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신치토세 공항으로 갔는데, 이곳은 생각 외로 평온했다. 우리는 공항 근처의 숙소에서 뉴스를 보며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하루를 보내고, 예정대로 3월1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스노보딩 원정을 마쳤다.

월요일에 출근하니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다. 동북3현(Japan Alps) 쪽으로 스키여행을 갔던 사람들은 리프트가 멈추거나 숙소가 정전되고 급기야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까지도 쉽지 않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쪽으로 여행을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천운에 감사드리면서, 대재앙의 한가운데서 체할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를 겪은 이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의 안전에도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 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전시회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3219-5635 팩스 : 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